

“부동산 대책 국가균형발전에 답 있다”

수도권 인구·기업 집중 유지 땀 아파트 값 잡을 수 없어
광주·전남 등 지방 인구유출 계속... 국가 미래까지 위협

문재인 정부가 인구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 아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인구의 집 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 시켜 수도권 내 아파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단순한 대출 규제, 징벌적 과 세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위축과 소멸을 앞당기면서 국가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인구와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 아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인구의 집 중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 시켜 수도권 내 아파트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단순한 대출 규제, 징벌적 과 세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위축과 소멸을 앞당기면서 국가 미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면서 노후아파트 가격 폭락, 빈아파트 속 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 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의 매입자 거주 지 분석을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5월 한 달간 3281채가 거래됐으며, 이 가운데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가 487채, 같은 자치구나 광주 거주자 2794채를 매입했 다. 한 때 30%대까지 치솟았던 광주 아파 트 외지인 매입 비율이 15%대까지 낮아 지고, 광주 시민이 주로 아파트 투기에 나 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에서 수도권으 로의 인구 유출은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 다. 직업, 교육, 주택 등의 사유로 수도권

으로 이주한 호남인은 2000년 5만명을 시 작으로 2019년 2만1000명까지 매년 수천 에서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호남, 영남 등 에서 주로 20·30대가 직장을 얻거나 대학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에 진입해 주거지를 마련하면서 아파트 수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및 공장, 유명 대 학 등의 강제 분산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 전에 나서야 수도권 아파트 수요를 감축 시킬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관련기사 2·3면〉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지난 2016년 1000명을 시작으로, 2017년 1만 6000명, 2018년 6만명, 2019년 8만3000 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00년 무려 15만명의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흡입된 뒤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규제 조치를 통해 점차 감소하며 지난 2015년에는 3만 3000명의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이주 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 시 수도권 집중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호 남에서는 지난 4년간(2016~2019년) 6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과거 4년(2012~2015년)의 1만명에 비해 6배나 급증했 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지방의 인구 및 기업이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아 파트 수요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북구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코로나19 사우나·고시원으로 확산

밀폐·밀접·밀집 실내 위험
무증상자 조용한 전파 우려

오피스텔 내 방문판매업체에서 시작된 광주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종교시 설을 거쳐 이번엔 사우나와 고시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6·7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정례 온라인 브 리핑에서 “지난 6일 확진자 6명 중 3명이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어서 또 다

른 감염 경로로 주목하고 있다”며 “6월 23 일부터 지난 6일까지 광산구 신장동 SM 사우나를 이용한 시민의 자진 신고를 받 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나에서는 확진자가 다수 나온 광주 사랑교회에 다니는 직원이 확진(광주 57 번)된 데 이어 매점 판매나 청소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이 지난 6일 밤 119~121번 제로 확진됐다. 전남 26번 확진자도 사 사우나를 최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한 고시원에서도 광주 117번

과 전남 29번 등 확진자 2명이 나왔다. 사우나는 광주 사랑교회와의 연관성이 의심되지만, 고시원은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감염’이 우려 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해외유입 자 1명이 추가돼 총 122명이며,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후 89 명이 추가됐다. 89명 중 41명은 무증상으 로, 지역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된다. 그

나마 다행은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접촉자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 정이 나왔다는 점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확진자 2명(전남 28, 29번)이 발생했다. 28번 확진자는 카자흐 스탄 국적 20대다.

29번 확진자는 목포에 사는 40대 여성 이다. 광주 117번 환자 등이 이용한 광주 고시원이 감염 경로로 파악됐다. 이 여성 은 고시원에서 지난 1, 2일 수업을 받았고 확진판정 전까지 목포·함평 지역 독서실, 포장마차, 마용실,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 을 이용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낙연 vs 김부겸’ 막 오른 민주 당권경쟁

출마 선언 이낙연
“국난극복 책임 이행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

광주에 온 김부겸
“지역주의 벽을 넘어
광주정신 온전히 계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7일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또 오는 9일 당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인 김부겸 전 의원의 이날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 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체계 주어진 국난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 면한 위기로 코로나19의 확산, 경제 침체 와 민생 고통, 격차 확대와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를, 평화의 불안 등 4가지 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육 성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입법, 사회적 전방 확충을 위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 지원, 일하는 국회 정착 등 5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 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당면 한 위기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자 갈길도 나올 것이지만 어떤 어려움도 마 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수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나아가길 방 향으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 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한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 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 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 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문 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 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 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 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 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 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 다.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며 “5·18민주항쟁 때 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대구지역 행 동적으로 10대 현상수배자에 이름이 오르 기도 했다”고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또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유 공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정 의가 진실의 토대 위에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 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 다.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며 “5·18민주항쟁 때 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대구지역 행 동적으로 10대 현상수배자에 이름이 오르 기도 했다”고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또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유 공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정 의가 진실의 토대 위에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수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나아가길 방 향으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 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 정당 등 5가지를 제시한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 겠다”며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가칭 ‘민생연석회의’와 ‘평 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 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문 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 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 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 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 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누가 몸으로 맞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 후보인지, 누가 광주정신을 온전히 계승 할 후보인지 선택받아야 할 때”라고 말했 다.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광주를 찾았다”며 “5·18민주항쟁 때 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대구지역 행 동적으로 10대 현상수배자에 이름이 오르 기도 했다”고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또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유 공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개정을 통해 정 의가 진실의 토대 위에 바로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19에 함께 내몰린 서민들 ▶6면
당신의 이야기 글로 써드립니다 ▶17면
KIA, 마무리 전상현·중견수 이창진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생명인생의 땅인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교통안전 캠페인

싸게싸게 가지 말고, 싸목싸목 살피주세요~

아시나요? 교통사고 90%는 운전자 안전부주의로 발생합니다.

무단횡단
안하기

전좌석
안전띠 매기

휴대전화
사용 안하기

속도
줄이기

응주운전
안하기

전라남도 JeollaNamdo | 전남지방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AGENCY